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④ 선승의 태몽



▶한줄요약
선승의 출생담에서 태몽 대신 부모의 '기자정성(祈子精誠, 자식을 얻으려는 기도)'이 들어가기도 한다.

선승 탄생 · 득도, 중생의 삶에 뿌리

5. 부모의 기자정성

선승의 출생담에서 태몽 대신 부모의 '기자정성(祈子精誠, 자식을 얻으려는 기도)' 이 들어가기도 한다. 늦도록 자식을 못 가진 부모가 초월적 존재에게 기도를 올려 자식을 얻는 기자정성 이야기는 우리나라 서사문학에 두루 나타났다. 선승 부모의 기자정성도 그런 이야기 전통과 관련이 있다. 선승의 부모가 불보살께 기도를 올려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부모 곁으로 온 선승이 다시 부모 곁을 떠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선승 부모의 기도는 간절하면서도 애틋하다.

보조선사(普照禪師, 804년)의 어머니는 잉태된 아이가 1년이 지나도 태어나지 않자 좋은 인연이 완성되도록 기도를 올린다. 고기와 술도 삼가고 계율로써 태교를 하면서 삼보를 섬긴다. 이런 정성으로 아기 보조가 태어난다. 하지만 아이는 세속을 떠나려는 마음을 일으켜 결국 부모 곁을 떠난다.

원융(圓融, 964년)국사의 어머니는 훌륭한 아들을 낳기 위해 보승여래(寶勝如來, 평등한 마음을 갖게 하여 인색과 탐욕을 떨쳐 버리게 해주는 부처님)상을 집에 모시고 기도한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도량을 개설하고 스님을 청하여 경전 강설을 주선한다. 혜소(慧昭, 972년)국사의 어머니는 평소 완전한 덕을 닦아 달이 방안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어 잉태한다. 보현보살 탱화 500점을 조성하여 발원하기를,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출가하여 스님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로부터 오신채와 고기는 일절 먹지 않는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 혜소의 목에는 여의주 같은 원상(圓相)이 있었다.

지광(智光, 984년)국사의 어머니는 자식을 얻기 위해 '광목(光目)과 똑같은 원력' 을 세운다. 광목은 지장보살의 전신인데 살생과 불법 모독으로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청정연화목여래를 향한 기도 정성을 다했다. 지옥에서 구출된 광목의 어머니는 광목 집에 종의 아이로 태어난다. 하지만 열세 살이 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질 인과를 벗지 못했다. 광목은 절망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여 결국 어머니로 하여금 해탈보살이 되게 하고 스스로도 지장보살이 된 것이다. 지광국사의 어머니는 자식을 낳기 위해 이런 광목 못지않은 서원과 기도를 다한 것이다. 혜덕(慧德, 1038년)왕사의 어머니는 아름답고 온유한 품성으로 삼보에 귀의하며 법왕의 제자가 될 아들을 간절히 구했다. 과연 부처님의 감응을 얻어 잉태한다.

선승의 아버지들도 어머니 못지않았다. 일찍이 가섭의 아버지 니구율타가 나무의 신에게 기도하여 가섭을 낳은 이야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자장(慈藏, 590년)율사의 아버지는 늦도록 자식이 잉태되지 않자 관세음보살상 앞에 나아가 자식을 낳게 해주시면 자식을 다시 바쳐서 "진리의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나루나 징검다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약속을 지킨다. 보조(普照, 1158년)국사의 아버지는 병약한 어린 보조의 쾌유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한다. 병을 낫게 해주시면 출가하여 부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 과연 보조는 나았고 8살이 되자 출가한다. 혜소(慧昭, 972년)국사의 아버지는 훌륭한 아들을 낳기 위해 자색 가사 10벌을 스님들에게 공양한다. 환암(幻庵, 1320년)국사의 아버지는 사냥을 하던 중에 달아나던 사슴이 거듭 멈춰 서서 뒤돌아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살펴본다. 멀리 사슴의 새끼가 뒤뚱대며 어미를 쫓아가고 있었다. 짐승이 새끼를 염려하는 것도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는 사냥을 중단하고 다시는 짐승을 죽이지 않는다. 아버지는 곧 병들어 죽고 아기 환암이 태어난다. 태어나면서부터 병약했던 아기 환암이 출가를 하려하자 어머니는 "네가 태어날 때 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사슴 어미가 새끼를 걱정하는 걸 보고 느낀 바 있어 사냥을 그만두었지. 너는 강보에 싸였을 적부터 자비와 인자함으로써 생명을 보호하는 도리를 나타내 보인 것이다"고 말해주며 출가를 허락한다.

태몽 대신하는 '기자정성'
서사문학에도 다수 등장
보조 · 원융 · 혜소 등 사례
어릴적 행실로 전생 연상

이렇게 선승 부모의 기도는 태몽의 자리에 들어가서 태몽 못지않게 아기 선승을 특별하게 태어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여 출가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선승의 부모는 자식의 출가를 반대하기만 하지는 않으며, 그래서 자식의 출가로 인해 부정되거나 잊히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선승의 성장이나 수행 및 득도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읽어낼 수 있다.

6. 특별한 어릴 적 행실

태몽보다는 태어난 아기 선승의 특별한 행실을 중점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선승의 비범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태몽이나 부모의 기도 이야기가 아예 없었거나 그것들이 후대에 누락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선승의 특별한 행실 이야기만을 부각시키게 된 것이다.

원각(圓覺, 1107년)국사의 어머니는 꿈에서 일산(日傘)들이 긴 줄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본다. 이는 아기의 잉태를 암시하는 태몽이라기보다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렬을 미리 보인 풍경에 더 가깝다. 아기 원각이 태어나자 어떤 스님이 찾아와 "저는 국청사(國淸寺) 정원(淨源)입니다"고 인사를 한다. 그러자 아기 원각은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있는 듯 정담을 나눈다. 금생에서 만난 적이 없는 스님과 구면인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아기 원각의 특별한 행동은 스님이었을 것 같은 그의 전생을 암시한다. 몽월 영흥(夢月泳泓, 1870년경)의 경우는 어머니가 달을 품는 태몽을 제시하면서도 역시 그가 태어나자마자 보이는 행실을 더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몽월 영흥은 어릴 때부터 비린 것을 좋아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는 거의 어울리지 않는다.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한다. 이런 특별한 행실에서 불가와 깊은 인연을 만든 자비로운 전생을 떠올리게 된다. 구하(九河, 1872년)의 태몽은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니 민속 태몽 중 영웅 탄생과 관련된다. 그래서인지 구하(九河)는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뛰어다닌다. 또래에 비해 체구가 압도적으로 커서 보는 사람마다 큰 독수리의 기상이 있다고 했다. 다른 한편 구하는 예의가 바르고 단정하였다. 고아들을 보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밥이나 옷을 아끼지 않고 나눠준다. 짐승을 죽이는 광경을 보거나 아이들이 짐승을 학대하는 모습을 볼 때는 안색이 창백해지고 눈물을 흘린다. 이런 행실은 용꿈이 연상시키는 영웅의 풍모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용감하게 전투하는 영웅과는 달리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수행자의 전생을 상정하게 된다.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이렇게 어린 선승의 특별한 행실을 강조하는 경향은 근대기에 들어오면 더 뚜렷해진다. 운봉(雲峰, 1889년)선사의 경우는 그 어머니가 오색이 찬란한 광채를 보고 잉태했다고 하여 태몽 요소가 희미해지고 그 대신 그의 특별한 행실이 부각된다. 즉, 운봉선사는 13살 때 부친을 따라 팔공산 은해사 구경을 간다. 불상을 바라보고는 환희심과 동경심을 억누를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바로 출가를 한다. 이런 특별한 행실과 갑작스런 출가는 전생의 수행 인연 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청담(靑潭, 1902년)의 경우도 태몽이 없다. 청담은 어릴 때부터 옆에서 짐승을 죽이면 마구 울어댔다. 물고기의 배를 가르는 것을 보아도 얼굴을 찡그리며 못 견뎌한다.

요컨대 근대기로 다가오면서 꿈을 통해 전생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태몽이나 부모의 기도 요인을 약화시키고 그 대신 어린 선승의 특별한 행실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전생을 간접적으로 연상시키고 미래의 출가를 암시한 것이라 하겠다.

7.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선승 태몽이 민속 태몽의 자장 속에서 생성됐다는 것은 선승의 탄생과 득도가 평범한 마을 중생들의 삶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아기 선승이 열악하고 비정상적인 환경에 버려져서도 다시 거두어져 위대하게 된 데에서 중생의 역경계가 불러일으키는 희망을 본다.

전생의 스님이 어머니를 찾아와 그 아들이 되기를 서원하는 태몽은 불교가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룩한 과정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 환생 과정으로 설명하자면, 선업과 지혜를 갖춘 중유(中有, 죽고 나서 다음의 생을 받기 이전까지의 존재)가 자기의 입태(入胎, 모체의 태속으로 들어감)과정을 바로 알아서(正知) 관찰하는 모습이라고도 하겠다. 또 '부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세상 사람들을 다 제도하셨다' 는 〈선문염송〉의 가르침을 받들게 한다. 나아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을 거듭하는 목숨 건 수행이 이어져야 함을 알려준다. 아니 금생의 모든 생명에는 불보살의 가피는 물론 억겁 세월의 생을 달리해온 분들의 간절한 비원이 깃들어 있음을 알게 한다. 이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일인가.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스스로 닦아서 자기 본성을 알게 되는 일이 사람으로 태어난 데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아기 선승을 잉태하고 탄생시킨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는 또 어떠한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내 본래면목은 어떤 것인가?(父母未生前 本來面目)' 이 화두가 철두철미 사무치게 들릴 때가 있다. 오늘 그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다. 선승의 태몽은 어머니 태로 들어오기 전 나의 본래면목에 대한 간절한 관찰로 우리를 이끈다. 그것은 우리 부모의 세속적 자식 사랑이 위대한 불보살의 가피와 다름없다는 진실을 믿게 한다.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부처님 6년 수행 육경신천안통사성제 사구계 사만다라 근본인 사람이 되어 성불하신 법으로 비구 · 비구니 사부대중, 유불선일체 종교가 사람이 된 마음심자로 성불하는 천하제일의 비법문자와 말과 글 · 염불 · 독경 · 화두 · 참선 · 명상 · 수행으로 찾지 못하는 화두의 근본 천안통 대법회

부처님께서 오통은 누구나 하지만 천안통을 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 하시고, 숨을 멈추고 1분 2분 3분 4분을 멈춘 생사해탈법은 모든 종교를 초월 새벽, 사시, 저녁, 예불 사분정근이 아니라 진법화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헛고생 없이 성불 도통하여 내생에 사람 몸 받는 천안통 대법회가 2022년 3월 7일 밤 해시, 해제 8일 해시에 화요일 경신일 성불도통 단번으로 백년수행보다 견성성불 도통하는 법회 부처님 성불하신 사정제 = 고집멸도의 태란습화이므로 태생은 사람, 난생은 조역, 습생은 충력, 수력은 짐승, 수자, 멸은 무간지옥을 면하는 기도가 천안통이고 사구계는 사 = 수, 육, 보영이고 구계는 진종도 민족업 봉천명이며 잠자는 두뇌를 움직이는 흐름으로 뇌하수체를 깨워 영과 혼 그리고 백을 살려 육신보존으로 생사해탈하는 것이고 이것을 막고 괴롭히는 자는 누구냐 귀신의 집단이며 지면 멸이고 이기면 성불하는 천안통 기도요. 천수경 앞에 나무사만다라의 근본화두를 찾는 것이 수행이지 하안거, 동안거에 있지도 않은 생명인 사람인 화두는 천안통을 하지 않은 비구, 비구니, 보살, 사부대중 수행지망생들은 모두 고행일 뿐이라 하신 것은 말법과 병겁에 불법도 살리고 자신도 살리고 중생도 구하는 지계 수복자에 의하여 나무사성계 사구계 나무사만다를 공개하오니 진법을 모르고 천년만년 읽고 수행하여도 근본을 모르기에 결국에는 신장철퇴를 맞고 한생을 보내지는 수행을 초월 한 번의 천안통으로 유불선일체종교가 하나로 되는 마음의 생명에 사람인 천안통 화두에 입문하시어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여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류스승 되소서. 1년 6회 동참비 120만원 이법은 지구촌 어느 대학이나 법전에도 없는 비법공개. 눈과 귀가 있는 자 따라오는 자 살 것이니라.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 구입처 : 태일 032-502-6625 010-9292-3110

환성 무상사 태일대종사

◉ 하일라이트TV 방영중 (동양철학운명, 성명, 수명, 출세성공, 인생운명 상담)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 입 제 일 : 2022년 3월 7일 월요일 해시 ■ 해제일 : 3월 8일 화요일 해시
■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간편한 옷 ■ 무박 2일. 한가지 소원을 얻는 기도
■ 계좌번호 : 농협 029-01-167866 (예금주 : 곽한영) / 1년6회 동참비 120만원 교재비 포함
■ 상담전화 : ☎ 032-502-6625 / 010-9292-3110

귄 천지공사 불선도. 육경신 천문도통회 총본산. 동양철학 운명감정 총본산
귄 대한불교 달마조계종 예성 용천사. 천룡진인 환성 태일 대종사 합장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